

최우수상 수상작: 밀물과 썰물

멀리 하얀 구름이 떠 있는 푸른 하늘과 새파란 바다가 맞닿는 곳에 썰물 로 빠져나간 바다의 끝이 보인다. 썰물이 되면 나는 갯벌 위를 뛰어다니며 많은 생물을 만나고 행복해한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될 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2012년, 나의 뱃속엔 물혹이 생겼다. 그 물 혹은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축구공만큼 커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병원에 가자마자 물혹이 매우 커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 수술과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수술 후 내 몸의 중요 장기들, 자궁과 난소, 임파선까지도 결국 예방차원으로 모두 절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떼어 낸 물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맡겼다는 말과 함께. 예상보다 큰 수술 이였음을 깨달았고 마음속에서는 과잉 수술이 아 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겼다. 부글부글 들끓는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났고 몸이 회복되는 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조직검사결과가 나왔다. 난소암 1기였다.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집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나도 저렇게 다니고 싶다, 저렇게 움직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점차 집 앞에 있는 북한강 산책로를 걷게 되었고 등산도 자주 할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좋아졌다. 아무 걱정 없이 활기차게 해외여행도 다녔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시기를 겪은 후인 2022년, 종합검진에서 양쪽 폐에 무언가 흩뿌린듯한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2012년 발병 이후 10년만의 일이었다. 다시 입원을 했고 새로운 조직검사를 했다. 폐에 그렇게 많은 이상부위가 발견되었음에도 세침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떼어 낸 조직이 너무 작아 이것이 폐에서 발병한 것인지, 난소에서 발병하여 전이된 것인지 판명도 쉽

지 않았다. 확인과정 끝에 난소암이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난소암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점액성난소암 이라고 했다. 1기였던 이 암은 내 몸속에 숨어 다니다가 4기로 재발하였고, 완치가 힘들다고 했다. 2012년에 시작된 투병시간은 썰물처럼 밀려간 듯했다가 2022년 다시 밀물이 되어 들어온 것이다. 밀려온 바다 위에 작은 배를 타고 누워 있는 나에게 풍파가 치듯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곧바로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에서 부인암 전문 교수님을 만나 표준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첫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사이, 재발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매일 울며 지내셨고 그래도 다 치료할 수 있다며 위로를 하시고 먼저 돌아가셨다.

그렇게 약 1년간의 반복되는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새로운 항암제를 찾고자 다시한번 정확한 조직검사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 이를 위해 폐강경 시술을 했는데, 시술을 위해 항암을 잠시 멈춘 동안 폐의 암은 순시간에 뇌까지 올라가서 6센티가 넘는 종양이 되었고, 왼쪽 몸이 마비되기 시작한 2024년 겨울 어느 날 새벽, 응급실에 실려가 개두술까지 받게 되었다. 그때는 의료 파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고, 마침 사태를 예견한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긴급 수술을 해주었다. 모든 것이 긴박했고 극적인 순간들이었다.

폐와 뇌에서 새로 떼어낸 조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었고, 임상에 참여하여 두번째 항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두번째 항암제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심한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어 먹는 것이 두려웠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도 없었으며, 팔다리가 저려서 잠도 오지 않았다. 이런 시련들이 나에게 암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 그리고 내 생명이 지금 끝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통이 점점 극심해질수록 성경 속 바닷물의 풍파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그 분께서 내 몸에 찾아온 이 암이라는 풍파도 꾸짖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은 나를 안도하게 하였고 나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욱 굳게 붙들게 되었다. 먼저 항암치료를 받은 암 환우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 친했던 한 명은 유방암 완치 후 자연치유와 관련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나에게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 자연치유만 받으라는 것이다. 햇빛을 받고, 고기를 먹지 말고, 암에 좋은 야채 음식만 찾아 먹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들을

모두 거절했다. 나를 지휘하는 것은 그가 아니었다. 나를 치유할 자는 그가 아니었다. 나에겐 나를 치유에 이르게 할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었다.

그렇게 나는 지금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꾸준히 항암주사를 맞고 있다. 약이 독하지만 아직까지 견딜 만하다. 적은 양이지 만 세끼 밥도 잘 먹고 있다. 물론 고통스러운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먹은 것을 배설하는 과정이었다. 장 트러블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면 '아, 이제 살만큼 살았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늘에 먼저 가는 것이 낫겠다' 라는 푸념이 절로 나오기도 한다. 그때 가족들이 나를 도와준다. 나의 배설을 도와주고, 황금잉어 같은 변이라며 재치 있는 말로 나를 안도하게 해주었다. 이럴 때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다시 힘을 내게 한다.

항암치료의 과정을 통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운동하는 기본적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의 사랑과 나를 이끄시는 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었다. 아직 60대 초반인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나의 실존의 의미를 깊이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었다. 고통이 없는 날들을 보낼 때는 '난 다 나았네'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잉여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라며 찾고 또 찾는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의욕이 넘치는 나를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먼저 길을 닦아온 의료진들과 지금도 암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최근에는 나와 같은 환우들에게 정보와 용기를 주기 위해 내가 먼저 걸어 온 길을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였다. 폐에 전이가 되었던 암세포가 결국 뇌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기억력은 건재하여 시나 성경을 암송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아침마다 "새 빛, 새 생명, 새 날 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라고 구호를 외치며 힘을 낸다.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최적의 치료법과 신약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한 끼 먹는 것, 황금 잉어를 낳을 수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이 한없이 감사하다. 나의 이러한 삶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나는 밀물 위에 배를 타고 흔들흔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길게 이어가고 있다.